

가보지 않은 길: 먼 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혁신과 변화의 구호는 자칫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압도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고요한 내면에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캐럿은 이제 창립 20년이 되어 간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먼 바다, 미지의 세계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헤밍웨이의 걸작 <노인과 바다>는 작은 배를 타고 혼자 고기를 잡던 늙은 산티아고가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에 늙은 어부의 자존감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다. 어부로서의 삶이 끝난 것 같은 어느 날, 그는 지금까지 나가보지 않았던 꽤 먼 바다로 나갈 마음을 먹는다. 두려움이 끼어들세라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이며, 노래도 불러가며 노를 저어나간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도 빠르고 극적인 변화의 바람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태풍의 눈 속에서 순간의 정적을 위안 삼아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있는 듯하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존 캐너시 교수는 이 시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라고 정의했다. 문제는 불확실성에 그림자처럼 동반하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정서이며, 이는 우리를 선뜻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조그만 배를 평생 가보지 않은 먼 바다로 몰아가는 노인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노인은 3일 동안 사투를 벌이며 평생 구경도 못해 본 큰 청새치를 낚게 된다.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사람들이 부러워 할 모습을 상상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배보다 큰 물고기를 매달고 밤새 노를 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다. 상어떼들의 공격을 받으며 위험한 고비를 몇 차례 넘겨야만 했고, 결국 살 한 점 없이 앙상한 뼈만 매단 채 돌아오게 된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에게 앙상한 뼈는 한 톨 가치의 금전도 제공하지 못한다.

노인이 사투를 해가며 얻은 것은 자신의 영웅적인 경험 그 자체일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평생 가보지 않았던 먼 바다로 노를 저어 나가는 용기는 무엇인가? 어부로서 자신의 삶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인의 ‘간절한 마음’과 누구보다 훌륭한 어부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혁신과 변화의 구호는 자칫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압도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고요한 내면에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나만의 영웅적 여정이 있는가? 84일째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의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캐럿은 이제 창립 20년이 되어 간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먼 바다, 미지의 세계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CEO James Roh(노상충)

인간은 파괴되어 죽을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 _ 헤밍웨이

